

미니보가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 당선자 유복재(사회·신문방송 90)군

“약속했던 공약·정책 꼭 지키터”

등록금 논의기구는 학교예산편성부터 학생들 참여 보장돼야



지난 11월 29일(금) 본보는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 당선자 유복재(사회·신문방송 96)군을 인터뷰했다. 유 군은 당선소문으로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며 “선거운동기간 중 약속했던 공약과 정책은 꼭 지키기”라고 밝혔다. 그는 또 등록금 논의 기구에 관해서는 기구의 이름보다는 ‘학교 예산을 편성하면서부터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행위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편집자

당선 소감을 들려주세요.
당선에 기쁘지만 책임감을 느낀다. 저 조한 투표율을 보면서 ‘내년 한해 열심히

생활해야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선거운동기간 중 약속했던 공약과 정책들은 꼭 실현하겠다.

선거운동기간 중 이뤄졌던 점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강의를 방문하는 등 학생들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했다. 그렇다고 일대일 면담을 해보면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학생회 모습에 대해 이는 학생들이 적어 많이 아쉬웠다.

여러 공약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학생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생들의 관심을 얻으려면 학생 자신이 학생회는 학생들

위해 복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최우선과제로 하고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 그러면 학생들도 학생회에 많은 관심을 보여줄 것이고 학생회도 강해질 것이다. 학생들의 사소한 의견이라도 먼저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공약집에도 많았듯이 과반반론, 도서관 앞 녹차트크를 통해 학생들을 많이 만났다.

공약 중 기속사항을 짓는 것은 대학공약집에 계획한 것 아닌가?
학생들이 의견을 한것 같다. 우리 공약은 기속사 건립 계획을 최대한 일단 기속하는 것이다.

등록금 논의 기구에 대해 구체적 법안이 있는가. 또한 등록금 논의를 위해서 용인과 대학원 총학생회에도 건립할 논의도 필요할 텐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등록금 논의 기구의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구체적인 날짜를 잡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대학원과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에도 만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선거운동기간 학생 여러분이 했던 비판과 대담한 충고는 잘 받아들이겠다. 학생 여러분도 학생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권정우 기자
tingyu@hammail.net

진단 - 양배움터 계절학기 문제점

계절학기, 돈 내고 학점사기?

서울 - 한 강의실에 100명 수업, 용인 - 커리큘럼 부족해

이번주부터 양배움터의 2002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강신청이 시작된다. 서울배움터에서는 이번 계절학기에 1,100명의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였으며 올해 처음 실용영어2, 실용영어의 수강신청은 약 4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용인배움터 학생이 서울배움터에서 수강하는 561명까지 합해 모두 2천여명이 계절학기를 수강한다.

토요일도 정상수업을 진행하며 오는

26일(목)부터 2003년 1월 15일(수)까지 1월 1일(수) 신청과 1월 7일(화) 2003학년도 정시 전형원을 제하고 16일간 진행된다. 33개 과목과 66개 강좌를 열 것으로 올해 처음 실용영어2, 실용영어 4 두 개 과목을 신설했다. 수업은 대학원과 사강실, 인문과학관에서 진행하며 수업시간은 학기 중과 동일하다.

용인배움터에서는 이번 계절학기에 지난해 동계 계절학기 신청자 268명 보다 100명 늘어난 374명의 학생이 수강

신청을 했다. 이 중 대교재(경관대 6명, 카뮈대 1명, 안양대 1명)는 모두 8명이다. 이처럼 계절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본보는 계절학기의 문제점을 알아봤다.

수강료가 비싸다

우리학교 계절학기 수강료는 등록비 1만원을 제외하고 1학점 당 60만 4천 원이다. 최대학점인 6학점을 들을 경우 등록비를 포함해 36만 4천원의 비용이 든다.

서울대의 경우 수강료가 올해 우리학교보다 높은 금액인 60만7천여원으로 계절과목과 우리학교 학생 17명만이 서울대의 계절학기를 수강하지만 수강료가 오르기 전인 2001학년도, 우리학교의 35.9%에 밖에 미치지 않는 3만 3천원이었을 때는 무려 46명의 우리학교 학생이 서울대에서 계절학기를 수강한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계절학기 신청시 수강료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이 드러난다.

우리학교의 수강료 산출방법은 (등록금+학점)이다. 하지만 우리학교와 계절학기 학점교류를 하고 있는 부산대의 “학생들이 원한다면 전공과목까지 개설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용인배움터 교수팀 김진섭씨는 “지방에 위치한 대학은 등록금이 싸기 때문에 계절학기 수강료도 우리학교보다 싸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학교에 어문계열의 경우 등록금이 220여 만원에 비해 부산대의 20여 만원을 감 할 때 이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지난 학기 서울배움터에서 계절학기를 수강한 용인배움터 영어과 학생회장 김경수(96)군은 “수강료가 너무 비싸는데다가 교양과목의 교재도 두세 권씩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라고 전했다.

커리큘럼이 다양하지 못하다

용인배움터의 경우 지난해 하계 계절학기를 시작으로 이번 2002학년도 동계 계절학기가 네 번째로 열리는 계절학기이다. 처음 5과목으로 시작했던 용인배움터 계절학기는 이번 학기 과목이 21개로 늘어난데다 처음으로 교양과목이 아닌 실용영어2와 부전공과목인 신상과, 경영학과 수업이 포함되는 등 다양화를 꾀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는 높다. 최수인(사류학·불어 97)군은 “스피드 체류권련 과목이 전혀 없어 아쉬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경자(사류학·영어 95)군은 “7과목이 많지만 과목이 부족하다. 정치·경제학·사회학과와 관련된 과목이 보강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용인배움터 교양과정위원의 사무주임 황승희씨는 “정기학기 수강신청시 가장 많은 학생이 수강신청한 한 과목을 우선적으로 계절학기 과목으로 선정했다”며 “학생들이 원한다면 전공과목까지 개설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편의·복지 문제

용인배움터 학생이 서울배움터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는 용인배움터 학생이 용인배움터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보다 187명 많은 561명이다. 이와 같은 현상의 이유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용인배움터의 내 거리와 불편한 교통, 식당 등 편의시설의 부족과 추위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지난해 토요일은 난방이 되지 않았던 문제는 올해 토요일 수업을 없앴으로써 일단락됐다. 또한, 모든 강의를 고급강의실에서 진행하고 PC실습실을 설치하는 수업에는 이동식 난로를 설치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배움터는 한 강의실에 100여명의 학생이 수업을 들어 발표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계절학기 수강하는 학생의 태도

서울배움터 학생회장 지현주(수업주임 조수장)씨는 “계절학기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소홀히 하고 학점만 따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용인배움터 교수팀 김진섭씨는 “계절학기는 유망생에게 치러지기 되지 않고, 교수에게 계절학기 수업도 정기학기와 똑같이 수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복습의 시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김경수군은 “다른 학교에서 계절학기를 수강한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대학교에선 계절학기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면서 우리학교는 시험감독도 제대로 안 이루어져 부정행위가 엄청났다”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mksipia@hammail.net



사설

총학생회 당선에 부쳐

내년 학생회를 이끌어 갈 양 배움터 총학생회 선거가 끝났다. 전국적인 학생회 선거 투표를 부진 속에서 우리 학교 또한 36.94% 용인 41.59%의 학생들만이 한 표를 행사했다. 올해 서울대가 5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월간 선거를 진행한 예나,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연정선거를 한 예나 비추어 보면 이는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다. 또한 전반적인 투표를 하락을 두고 어떤 학생회 선거 뒷날 할 수는 없다. 투표를 부진 속에는 학생들의 정치 무관심, 기존 학생회에 대한 불신 등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 속에서 지지를 회복하는 것은 사활적인 목표로 나간다. 양 배움터 당선자들 또한 본보와 인터넷 속에서 ‘학생들의 지지를 얻는 우리 학생회 건립에 역량을 들 것’ (서울) 300 학생회 간부를 양성할 것 (용인)을 최우선의 목표로 잡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새로 시작하는 2003년 학생회 역사에 본보도 몇 마디 기우에 덧붙여 수고 있는 조건을 먼저보고자 한다.

첫째, 공약에 최우선으로 제시한 만큼 학생회 역량을 튼튼히 하는 데 역점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지난 몇 주간의 학생회 선거 기간동안 본보가 실사한 여론조사, 배지 대치보, 개별 만남 속에서 일반 학생들은 여전히 ‘학생회는 먼 존재’라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용인배움터의 경우 학생회 간부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좀 더 낮은 포커스로 학생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둘째, 재단 공영화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인 여론화와 의견 제시를 바란다. 재단 공영화 안이 발표된 지 한 달여가 지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교수, 직원은 물론 자체 의회를 거쳐 이를 공론화했다. 이제 시작한 총학생회는 이에 대한 여론과 작업에 힘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영화의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제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를 바란다. 학생 대표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수, 직원에 비해 재단에 관한 여러 정보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고 양 배움터가 공조해 재단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

셋째, 입기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연결점은 총학생회를 기대한다. 기간 총학생회는 3월과 10월의 모습이 관조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준 했다. 보통 총학생회 입기가 끝나는지는 10월 중순이 되지만 끝까지 많은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거나 정리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다. 이런 면에서 서울배움터 36대 총학생회가 자체 공약 공개서를 낸 것은 일견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3년을 이끌어가는 총학생회 또한 입기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공약 이행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

허진의 와대들기 (1)



2003학년도 전기 일반전형

세계경영대학원(아진) 신입생 모집

● 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 : 00명, · 연구과정 : 00명

● 모집학과 및 전형방법

과정	학과	모집인원(정원)	전형방법
경영학석사	국제통상	4명(정원 4명)	서류전형
	국제통상	4명(정원 4명)	
	국제통상	4명(정원 4명)	
	국제통상	4명(정원 4명)	
경영학석사	국제통상	4명(정원 4명)	서류전형
	국제통상	4명(정원 4명)	
	국제통상	4명(정원 4명)	
	국제통상	4명(정원 4명)	

● 학위과정 특징
가. 2년제 석사학위 취득 가능
나. 학위논문 유선제 실시

● 지원자격
· 4년제 대학(가) 교육과정(전)을 이수한 자
· 또는 2003년 2월 졸업예정자
● 학부전공에 제한 없음

●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소정서식, 원본과 함께 3인 3부, 홈페이지에서 출력)
나. 최종학력 증명서(영문) 등본 1부
다. 성적증명서 1부
라. 추천서(총 3부, 추천서 1부, 추천서 2부)
※ 영문인사의 외국대학 출신자는 증명서에 국문 번역을 첨부

● 전형일정
가. 서류전형 : 2002. 11. 13(수) ~ 11. 19(화)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접수
나. 원서접수 : 2002. 11. 13(수) ~ 11. 19(화) (오전 9시 ~ 오후 9시)
※ 토요일, 일요일 휴무

● 특장점
가. 입학원서 : 2002. 11. 23(토) 14:00 본 대학교

2003학년도 전기

정책과학대학원(아진) 일반전형

● 정책과학대학원은 인문대학과 함께 대학원생 7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 학과별 모집과정 및 전형방법

모집과정	학과	모집인원	전형방법
정책학석사	행정학	4명(정원 4명)	서류전형
	행정학	4명(정원 4명)	
	행정학	4명(정원 4명)	
	행정학	4명(정원 4명)	
정책학석사	행정학	4명(정원 4명)	서류전형
	행정학	4명(정원 4명)	
	행정학	4명(정원 4명)	
	행정학	4명(정원 4명)	

● 지원자격
가.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2003년 2월 졸업예정자
나. 기타 교육과정(전)을 이수한 자
● 대학의 전공학과와 다른 전공분야에 지원할 수 있음

2.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소정서식 3매(3×4cm)) 1부
나. 최종학력 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다. 최종학력 증명서(영문) 등본 1부
라. 성적 및 경력증명서(영문) 등본 1부
마. 추천서(총 3부, 추천서 1부, 추천서 2부)
※ 해외에서 학위취득자는 ‘나’, ‘다’항목 제출서류를 첨부

3. 전형일정
가. 원서접수 및 접수 : 2002. 12. 9(수) ~ 12. 17(화)
· 교수(부) : 인터넷 24시간, 접수 : 09:00 ~ 21:00
나. 전형(면접) : 2002. 12. 21(토) 14:00
다. 합격 발표 : 2002. 12. 30(토) 14:00 (본 대학교 게시판)

4. 장학금 지급
가. 본 대학교 장학금 지급대상자
나. 본 대학교 장학금 지급대상자
다. 장학금 지급대상자(장학금 지급대상자, 장학금 지급대상자)
라. 국가공무원(국·공·포) 및 인건비 관련 장학금 지급대상자

5. 기타사항
가. 학위논문 : 2002. 12. 30(토) 14:00 (본 대학교 게시판)

공 고

2002학년도 제2학기

기말시험 및 추가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

- 아래 -

● 시험기간
2002. 12. 16(월) ~ 12. 20(금) ... 5일간
(12. 19(목) 시험은 대통령 선거일이므로 임시휴일인 관계로 12. 12(목)에 시험함)

● 평가방법
가. 시험시간은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담당교수 제정으로 실시함
나. 시험은 필답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 수업종류, 기말, 과목별 시험방법으로 평가함

● 추가시험
가. 대상자 : 해당과목의 중간·기말시험을 모두 결한 자
나. 시험방법 : 필답시험 및 필답시험을 모두 결한 자
다. 추가시험 실시 : 2002. 12. 23(월)
라. 추가시험 성격 : B+이하 (학점 3.63)

제 6 기 영어시험

5주합숙 영어합숙과정

● 연수기간 : 2003. 1. 6(월) ~ 2. 7(금) / 5주 합숙

● 연수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평생교육원(용인캠퍼스)

● 모집대상 : 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 및 일반인

● 모집인원 : 120명(선착순 마감)

● 모집기간 : 2002. 12. 21(월) ~ 12. 6(금) 09:30~17:00

● 참가비 : 200만원(숙식, 교재, 행정요금 등 제비용 포함)

● 문의전화 : 031-330-0103~0104(교과과), 4807~8(연수팀)

인터넷 홈페이지 : <http://segero.hufs.ac.kr/ice>

● 영어시험 주관 일정

구분	일	시	내	소
07:30~08:00	기상, 학생등록	08:00~09:30	영어시험	주말대리점
10:30~11:00	영어시험	11:00~12:30	영어시험	주말대리점
13:30~15:00	영어시험	15:00~17:00	영어시험	주말대리점
19:00~20:30	영어시험	20:30~22:00	영어시험	주말대리점

● 참가 일정은 모두 영어로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Age group	Number of people
1	100
2	0
3	20
4	30
5	25
6	10

A diagram of a fish's head and jaw structure. The diagram shows the following parts labeled with numbers in circles:

- 1: Upper jaw (maxilla)
- 2: Lower jaw (mandible)
- 3: Gill cover (operculum)
- 4: Gill rakers
- 5: Gill arch
- 6: Gill filament

A diagram of a cross-section of a tooth. The pulp chamber is labeled 1, the pulp space is labeled 2, the pulp space is labeled 3, the pulp space is labeled 4, and the pulp space is labeled 5.

외대학보 565

기고·브라질대선 '롤라'의 당선과 중남미 좌파비판 분석

중남미에서 커져가는 신자유주의 반대여론

21세기 새 대통령 '롤라'

10월 27일 치러진 브라질의 대통령 결선투표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무엇보다 '노동자당'(PT: Partido dos Trabalhadores)의 브라질롤라(Lula)의 당선 때문이다. 롤라(Lula)의 본명은 Luiz Inácio da Silva이다. 그러나 보통 애칭으로 '롤라'로 불린다. 본명과 함께 출마 때는 Luiz Inácio Lula da Silva처럼 애칭에 따라 표시를 해야 한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브라질과 다른 브라질을 강조한 롤라후보의 지금까지의 브라질을 대표한 집권여당의 세하(Jos Sarney)후보의 대결은 브라질뿐만 아니라 중남미를 넘어 세계 많은 나라의 시선을 끌었다는 뜻이 있다.

그리고 1억 7천만 브라질인들은 '노동자당'의 롤라후보를 61.4%의 압도적 지지도로 선택했다. 브라질 국민은 보수 기독교세력과 국제 금융자본의 노골적인 지지를 받는 집권여당의 세하후보가 제시하는 '현재'를 포기하고, 좌파 '노동자당(PT)'이 제시한 '미래'를 선택한 것이다.

롤라의 당선은 일부 정치인들에 의한 나라의 정치적 '정적'과 우파 정치에 만 길들여져 있던 브라질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브라질의 자존심과 '확실한 변화'에 미래를 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롤라 후보의 당선 첫 일순은 '희망이 무르익었다'였다. 그것이 2002년 10월 27일 브라질의 선택이었다. 브라질 민중은 '롤라'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당선된 롤라후보는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는 말로 국민의 환호에 화답했다.

1989년 브라질이 공화국으로 바뀐 이후 13년만에 처음으로 민민은 출신의 한 노동자가 3년 47일의 신화를 창조하며 자신의 57번째 생일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이변' 아닌 '이변'을 연출한 것이다.

브라질 역사상 최초의 좌파 대통령인 롤라는 '롤라'에서 정통까지 오른 입



지적적 인물이다. 그는 1945년 브라질 북동부 페르남부루(Pernambuco)주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지독한 가난으로 인해 '구두타이'를 하며 집 안 살림을 도와 아한 했던 롤라는 10살이 돼야 글을 겨우 배우고 나서, 초등학교를 5년간 다닌 것이 공식 학력의 전부이다.

14세부터 금속공장 노동자로 취업한 롤라는 19살 때 방랑 공방에서 금속 손가끼에 걸린다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1972년에는 상 베르나르두 두 캄푸 금속노동자의 제 1서기로, 1975년에는 10만 명의 노동자를 둔 브라질 철강노동자 연합장에 당선됐다. 그리고 그때까지 '어름'으로 불렸던 철강노동자를 강력한 독립노동자로 탈바꿈시켰다. 군부독재정권 하에서 수차례의 상공회 파업투쟁을 통해 전국적인 지도자로 부상한 롤라는 80년 2월 철강노동자를 비롯한 산업노동자와 함께 규합해 노동자당(PT)을 창당했다. 브라질 정계의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했다.

또한 1983년에는 단일노동총맹(CUT) 결성에 참여했고, 84년에는 민주노동당인 '디테라스 자'(지급 당장 직정선거를 위한 뜻)를 주도했다. 그리고 86년 연방의원원에 출마해 전국 최대득표

로 당선됐다. 1989년 30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된 대통령 직정선거에 노동자당의 후보로 출마한 롤라는 47%의 득표를 얻었으나 52%의 득표를 얻은 콜로라에게 패했다. 그리고 94년 98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카르도스 대통령에게 연거푸 패배를 맞았다.

커져가는 신자유주의 폐해 1990년대 중남미는 경제적으로 '잃어버린 10년'으로 표현되는 80년대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모델을 채택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등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환을 안정에 바탕을 둔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을 채택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개방과 민영화

를 가속화시켰다. 이에 따라 중남미가 동아시아에 이어 제2의 신경제권으로 부상했으며,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3.3%의 성장률을 보였다.

아르헨티나와 페루(Carlos Menem)대통령, 카르도스(Fernando Henrique Cardoso) 브라질 대통령, 그리고 후지모리(Alberto Fujimori)페루 대통령은 90년대 10여 년 동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충실히 추

진한 정치인들이다. 이들은 시장개방, 민영화 등을 기반으로 한 성장 우선주의 경제정책을 통해 경제에 빠져있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수환(수환)에 이르는 인플레이션을 극복했다. 무엇보다 실업적인 인플레이션을 해결한 이들 정치인들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재선과 3선에 출마하는 등 정치적 모험을 감행했다.

그러나 2002년 현재 아르헨티나, 페루, 브라질 등은 심각한 경제위기

를 맞고 있다. 주요산업의 해체와 실업자의 양산, 중산층의 감소, 빈곤층의 확대 등에 따라 지난 10년간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쌓여갔다. 그리고 순탄해 보였던 경제의 실패는 이 지역에서 신자유주의를 반대하

는 좌파 정치인들의 입장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확신되는 좌파정권 1998년 56.2%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당선된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정치, 경제 질서에 지배하는 중남미에 새로운 도전이자 충격이었다.

송기호 (서울이과 71년, 전, 전북대 교수)

노동자가 나서는 '제3의 길'

요즈음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 참혹한 연달을 맞이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30만 이상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올 12월로 장기파업에 들어가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우파정부와 좌파노동의 대결로 인한 유럽의 마비현상에 비유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파업과 시위는 우리로 하여금 유럽파업의 '제3의 길' 혹은 변화된 정치현상에서 노동자들의 대안과 어떤 것일 수 있는가라는 시사점을 갖게 한다.

지난 80년대 이후 영국 블레어 총리의 사회, 경제정책은 한편으로는 주요산업의 국유화, 사회보장제도의 정비 등 노동당의 기존 사회주의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소득에 감면제도와 기업 경영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과 같이 이전의 노동당으로서의 상상할 수 없었던 기업우대정책을 수행해왔다. 당시 블레어의 수상인 존 메이저는 영국사회의 현대화가 공공부문의 노력없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란 지적하면서 교육, 주택, 보건 등의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성과를 특히 강조하였다. 이것은 일년에 겨우 1.6%의 임금상승률(연평균임금의 지수)에 비해 지난 3년간 50%까지 증가한 조세부담을 더한 일변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교육노동조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블레어와 부하인 마이클, 그리고 낮은 임금상승률로 인해 연금의 확보가 어려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지휘노동자층 역시 근로조건과 임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부수적인 존 메이저는 현재 공공서비스의 범위에서 허용되지 않는 임금상승은 자체 서비스의 근대화에서 의해서만 가능하며,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해치는 어떤 조치도 수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지난 97년 블레어와 함께 집권에 성공해 한때 유럽의 좌파비판을 일으켰던 사회당의 요코프는 블레어의 '제3의 길'과는 차이를 주장하면서 프랑스의 좌파정부를 수행해왔던 것과 현상화했다. 그러나 고질적인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코프는 도입한 '35시간 근무제'는 한때 노조와 고용주 모두의 반대로 철회되었다. 당시의 문제 역시 의료보험과

연금 그리고 가족수당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우파정권의 시기와 수상인 리퍼데어 국영기업의 민영화, 재정지출 감축,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다시 한번 프랑스 경제정책의 문제를 공공부문의 희생을 통해 한화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지난 10월 트러콘수준의 시위로 시작된 이번 파업은 6월에 집권한 보수정부에게는 최초의 도전이다. 교사들, 우체국노동자들, 철도직원들 그리고 다른 대중노동자들이 보수정부의 개혁에 맞서 한창 시위를 벌이고 있다. 비록 시라정부부가 불법파업에 대한 강경대응을 선언하였지만 이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시위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근로조건과 임금인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제 노동자들의 이해는 어떤 정치적 수사의 좌파정당이 책임지거나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보인다. 지난 1997년 총선에서 승리한 프랑스 좌파정당이 모택동 사회주의를 내세웠던 것이 실망에 있어서는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의 반대로 상당부분 실패를 보지 못했다.

이 국가들은 모두 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의 상당부분을 낮은 임금상승을, 낙후된 근로조건, 미비한 사회시설 등의 공공부문의 희생을 통해 이루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특정 사회, 경제정책이나 조건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동안 축적된 노동자들의 불만이 유럽의 거시적인 경제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일 수 있다. 유럽연합의 이들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확보해야 하는 바에 따라 있다. 그러나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재정적자감축 방침으로 인해 추가적인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노동자와 고용주간의 합의와 관리하에 있는 '사회보장기금'에 대해 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나 대안지향, 요코프는 그런 시도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것은 공공부문의 문제가 아닌 한쪽의 희생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채미하 (일대대학 국제관계학과 학위과정)

中國語門

고려중국센터

개강 12월 2일

(현재 상담 접수중)

www.china-center.co.kr

"3년연속 정상을 지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37명의 전문강사진! 23개 과정의 다양한 프로그램!

기초부터 체계적인 한중합동강의

처음시작부터 확실하게

기초1단계 - 17년 경력 부원장 강의

회화기초반 - 30년 경력의 대표강사

중고급과정은 튼튼하게

중급5단계 - 20년경력 중국인대표강사

중급6단계 - 15년경력 강사의 개인화 강의

본원의 특징

1. 국내최고 전통의 중국어 전문학원!

2. 매년 연속 중국어 각종 시험 최다 합격자 배출!

3. 매월 마지막주는 전과목 공개강의!

4. 북경에 한중합작 중화고려대학 설립 운영중!

"중국정부가 발표한 고급HSK(9-11급) 본원합격자" - 또! 전국最多

2002년 3월, 9월 시험

타학원들이 본원강사를 유치(誘致), 모방하려하나 결과는 모방 못합니다.

출원자

구문주	권민선	김미정	김병현	김성수	김이영	김영주	김영희	김지영	김현정
김유민	김민정	민영선	민영선	박민수	변희정	배성희	신영미	김지영	김현정
유재민	윤영미	오하나	이정은	이성미	이성진	이은희	이은희	이은희	이은희
이정미	이정희	이주희	이정희	이정희	이정희	이정희	이정희	이정희	이정희
정영문	정영문	정영문	정영문	정영문	정영문	정영문	정영문	정영문	정영문

총 52명

▶▶▶ 알립니다 ▶▶▶

본원이 설립운영중인 북경의 중화고려대학(中華高麗大學)외에 중국의 5대 유명대학(本科) 편입학을 위한 장기반(4개월, 6개월, 1년반)을 2003년 3월 개강예정입니다. 2월중순 레베탈스트로 반을 편성하고, 희망대학의 파견 근무 교수와 직접 상담후 편입학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KC 중국어학원 1호선 중랑역 737-8255

진단·해내 문화공간 진단

열정은 'A' 학점, 여건은 'D' 학점

요즘 학내 곳곳에서는 각 동아리·학생회들의 한해를 마무리하는 공연과 전시회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 행사들은 이들이 1년간 쌓은 실력으로 준비한 공연과 여러 작품들을 학생들 앞에 선보이는 자리로 1년의 활동이 평가받는 행사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요한 행사들이 외대 내에서는 그 의미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먼저 용인배움터의 경우 학내문화시설이라 할 수 있는 곳을 살펴보면 학내 중앙에 위치한 노천극장, 대부분의 전시회가 열리는 학생회관 전시실, 공연이나 행사가 열리는 후생복지관(후복관) 소극장과 자연대 강당을 들 수 있다. 이들 공간의 가장 큰 문제는 어느 하나 전용공간으로 자처하지 않아 그 역할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노천극장-눈길 끌지 못하는 위치
먼저 학내 공연의 대부분을 담당해야 할 노

천극장은 위치와 열악한 시설로 공연을 기획하는 학생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학생들이 다니는 길과 떨어져있고 지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 한 탓에 공연을 할 경우 학생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는 것이 큰 단점으로 지적된다.

학생회관 전시실-시설보수와 개방형구 조 모색

학내 유일한 전시공간인 학생회관 전시실은 낙후된 시설보수가 시급하다. 얼마전 정기 전시회를 가진 그림사랑의 우수성(정보선입금·정보선 01)군은 "고장난 조명시설의 보수와 전시회중에 사용될 음향시설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용인배움터 동아리연합회장 백경숙(자연·생명과학 07)군은 "전시실의 전면 보수가 필요하다. 전시실은 학생들이 스스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개방형구조로 보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전시실의 수도 지적된다. 용인배움터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곳은 학생회관 전시실 한곳뿐이다. 학기말을 전시회를 준비하는 동아리들이 몰릴 시 동아리 일정에 맞출 수 없는 상황도 지적된다.

후복관 소극장-음향기, 조명기기보수

후복관에서 연극을 공연했던 중국어과 박종호(동양·중국어 08)군은 "후복관 시설은 안정적인 공연을 하기엔 음향기기 조명기기 모두 부족하다"고 말한다. 역시 후복관에서 공연한 일본어과의 김동훈(동양·일본어 01)군은 "무대가 좁고 또한 바닥이 거칠어 공연하기가 쉽지 않았다. 조명 고장도 문제가 있으며 일차형 파식배치등 장비 문제로 공연을 위한 무대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한다.

자연대강당-방음시설 보강 필요

자연대 강당은 후복관 보다도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넓은 공연장, 음향시설, 조명시설까지 학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공연이 가능한 장소이다. 하지만 공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이 아니기에 장시간 앉았기가 힘든 의자와 소리가 파지는 방음시설의 문제가 지적된다. 이와함께 락 동아리 NSM의 회장 서충원(자연·전자공학 01)군은 "학내 문화 공간 중 자연대 강당이 가장 공연하기 좋다. 하지만 학교청사에서 떨어진 위치와 공연하기 힘든 의자배치는 문제점이다"고 말한다.

용인배움터 공연시설 할로 찾기

다행히 용인배움터의 문화공간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동아리연합회 측에선 대학민국과 협의해 서풍연과 같은 현재 연습실이 없는 동아리들의 방을 증설하고 이와함께 공연전문이나 전시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포함한 건물의 설계를 마쳤다.

이번 설계안은 오는 총회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학교측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동아리연합회 회장 백경숙은 "총학생회와 동아리들이 모여 설계를 짜는 중이다. 이번 설계가 통과되면 전시실과 공연장의 문제에도 활로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지금 서울배움터는 부족한 전력문제와 협소한 공간으로 큰 행사를 진행할 장소도 마땅치 않다. 최근 진행했던 '외대인을 위하여'와 같은 큰 행사를 진행할 시 외부에서 전력을 끌어오고 운동장에 세로로 무대를 건설해야 할 정도로 현재 서울배움터 안에는 안정적인 행사를 할 장소가 부족하다. 이와관련 서울배움터 동아리연합회장 이희준(사회·정치외교 09)군은 "전력과 공간문제도 대부분의 해결책을 본관건설에 기대하고 있다. 전력문제는 본관 지하의 전력을 끌어오고 대학담국이 약속한 30%생관공급공으로 공간문제도 조금은 슬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다.

다"고 전한다. 학생처에서도 학생들의 설계가 들어오는 대로 논의할 것이라 답했다.

서울배움터의 문화공간문제는 용인배움터 보다 심각하다. 서울배움터의 좁은 공간과 노후된 건물로 인해 학내 행사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고있다. 서울배움터의 대표적 행사장소인 노천극장과 대학원 소극장의 현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배움터의 공연시설의 현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노천극장-부족한 전력과 소음문제

노천극장의 경우 소음문제가 심각하다. 노천극장과 맞닿아있는 도서관과 노천극장 밑에 있는 동아리들은 각종행사 때마다 발생하는 소음으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노천극장 지하의 소리가 잘 퍼지는 개방형구조와 노후된 벽으로 인해 노천극장의 소음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다. 소음문제에 대한 방음벽을 여러 해결책이 제안되지만 근본적인 소음문제 해결은 장시간 전이 되지 않는 한 쉽지 않다.

대학원소극장-스피커보수와 관람용의자 필요

대학원소극장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나마 서울배움터 안에서 안정적으로 영화를 볼거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본 건 건물에 공연이나 행사를 목적으로 자여진 공간이 아니기에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 얼마전 열린 세계영화제를 준비한 서한비(사상·불어 09)는 "대학원소극장의 경우 장시간 앉았기 힘든 의자와 스피커등의 문제가 있다. 하지만 학내에 이곳 이외에 특별한 대안도 없다. 부족한 학내 시설로 인해 이곳을 버리는 일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고 말한다.

서울배움터 공연시설 할로 찾기

서울배움터의 연을 담당하고 있는 송도보(동양·일본어 00)장은 "다른 대학에 부러움을 느끼는 건, 오래된 건물의 감성적이지 않은 건, 세로의 건물 연장이 보정되어있는 점이다. 세로의 건물 짓는 것이 힘들면 시설관리도 열심히 해야한다"고 말한다.

또한 지금 서울배움터는 부족한 전력문제와 협소한 공간으로 큰 행사를 진행할 장소도 마땅치 않다. 최근 진행했던 '외대인을 위하여'와 같은 큰 행사를 진행할 시 외부에서 전력을 끌어오고 운동장에 세로로 무대를 건설해야 할 정도로 현재 서울배움터 안에는 안정적인 행사를 할 장소가 부족하다. 이와관련 서울배움터 동아리연합회장 이희준(사회·정치외교 09)군은 "전력과 공간문제도 대부분의 해결책을 본관건설에 기대하고 있다. 전력문제는 본관 지하의 전력을 끌어오고 대학담국이 약속한 30%생관공급공으로 공간문제도 조금은 슬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다.

김종원 기자
hress@korea.com

탐방'인체의 신비'전을 다녀와서

실제이기에 신비로운 인체



"기증자들의 숭고한 뜻을 존중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히 관람해 주십시오" 전시장 앞에 들어서자 관람자의 눈길을 끄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할가 브라우닝이라는 한 기증자는 유언을 통해 "나는 항상 매직같은 것보다는 과학을 돕는 데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과학의 발전과 일반인들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 기증자들을 생각해보니 마음속이 숙연해졌다. 인체의 신비전의 전시물들은 모양이 아닌 실제 인간의 몸을 최첨단 프라스티네이션 기법(진공주입을 통해 인체조직 및 지방세포의 수분을 반응성 플라스틱, 실리콘 고무, 에폭시 수지, 폴리에스터 등으로 교체해 보존 건조하여 영구적, 직접 만질 수 있게 하여 생전의 인체의 특징을 완벽하게 유지 할 수 있게 한 해부학 기술)으로 완벽하게 보존하여 실제 인체를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인체의 신비 이 전시회는 인간의 몸을 주제로 한 전시회였다. 우리의 몸 속에는 뼈, 근육, 혈액 등 어느 것 하나도 빠지지 않는 일 것들들로 가득 차 있다. 요즘처럼 건강과 생명의 소중함이 강조되는 환경에서 사는 우리 자신의 몸을 먼저 알아야 한다. 우리의 몸속 구조를 눈으로 직접 보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 말 그대로 인체의 신비이다.

아름다운 인체의 사진전으로부터 시작되는 전시장은 인체의 골격과 근육, 신경계통, 소화기관, 내장기관, 생식계통, 인체의 발생과정 등으로 이어졌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다양한 인체의 근육형태를 보여주기에 위해 피부가 제거된 채 여러 운동상태로 인체가 고정되어 있는 전시물이었다. 공을 잡기 위해서 몸을 던지는 골킥머, 장 뛰는 사람, 해수를 두고 있는 사람, 그리고 분필과 책을 들고 강의를 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선생님의 모습 등, 각기 다른 자세에서 서로 다른 모양의 근육의 형태를 볼 수 있었다. 주춧돌에서 이를 통해 인체의 근육과 신경계통을 생생하게 보여주려는 과학적 취향이 있었는지, 관람하는 이로써는 드라마 근육으로 인한 심리적 불쾌감과 두려움을 덜 수 있는 좋은 시도였던 것 같다.

다른 한쪽에는 정상상태의 장기와 종양 등으로 손상된 장기를 비교하여 전시물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흡연으로 인해 손상된 폐와 건강한 폐가 비교 전시되어 있는 곳은 사람들이 쉽게 시키는 바가 있다. 국가적으로 금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관람객들에게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였다. 또 하나, 기자의 호기심을 끈 것은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을 최초의 수정란에서부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형태를 갖게하는 태아의 모습을 시기별로 구성된 전시물이었다. 생명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사라진 요즘, 인체의 신비로움과 생명의 존엄의 놀라움을 느낄 수 있었다. 여러 전시물 중 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인간의 3차원적(프라스티네이션)인체 앞에서 기자는 움직일 수 없었다. 입술, 피부의 탭구멍과 눈썹을 너무나 생생한 모습의 전시를 앞에서 그 몸의 갈라진 몸을 하나로 붙여 놓으면 살아서 내려가 다가가려 할 것 같았다. 같은 모습을 뜨고 사선을 마주 할 것 같았다. 그의 모든 것은 죽어있었지만 그는 살아있는 듯했다.

한 외국 언론에서는 '이 전시회에서는 인간 최초의 위대함을 축하하며 하지 않고, 그 보다는 인간의 유해를 존중하고 흠내낼 수 있는 예술작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라며 '누구도 시체에 대해 불경스럽게 접근하지 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부활을 재회 받을 수 있다. 무서움과 공포에서 우리는 계몽과 경이감을 본다'고 하였다.

시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경이로움과 신비감으로 바꿔주는 것이 이번 전시회의 가장 큰 소목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실제로 사람의 몸은 인체의 노예 '사람'이 못보다 아름다워야 하는 달리 못보다 아름답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정교한 신비로움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무엇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권문주 수습기자
redbubble2000@hanmail.net

장소: 국립서울과학관(대학로)
문의: (02)741-3913
www.bodyworlds.co.kr
관람시간: 오전10시~오후9시

39회 외대문학상 / 19회 외대학술상 공모

오랫동안 글을 쓰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 이 땅의 날씨가 나뉘고 나는 그 날씨를 건디지 못했다... 적어도 내게 있어 글을 쓰지 못하는 무력감이 육체에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알았다.

시경도, 「詩作매모」중.

글쓰기, 내가 이토록 글쓰기에 마음을 매고 있는 것은, 이것으로만이, 나, 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에서 벗어나 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닌지.

- 신경숙, 「외면방」중.

글을 쓰지 않는 내 삶의 터전은 어느 곳에도 없었다.

- 박경리, 「토지」서문 중.

...이제, 당신의 글.

문학상

시(3편이상), 소설, 수필, 희곡, 평론분야

학술상

인문, 사회, 자연과학 분야 등

마감

2002년 12월 31일

상금

총 200만원

문의

서울 02-961-4152

용인 031-330-4112

E-mail oedaepress@hanmail.net

유의사항

심사용·보관용 2부씩 제출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